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24(금) ~ 2023.11.30(목)

제공일시 2023 12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24(금) ~ 2023.11.30(목)

제공일시 2023 12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엔 항공회의, 2030년까지 배출가스 5% 감축 목표 합의

- 100개국 이상의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유엔 주도로 5일간 회담을 가진 뒤, 저속가능항공연료(SAF)와 같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 가량 줄이겠다는 중간목표에 동의함
- 이전 초안은 5~8%의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5%로 합의를 이룸
- 이에 중국과 러시아 및 일부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중국, 사우디, 이라크 등은 2030년이라는 날짜, 5%라는 목표를 정하는데 반대함. 케냐에서는 자국에서 SAF 생산시설을 짓기 위한 자금조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함

(로이터통신 2023.11.25) 엘리슨 램퍼트, 팀 헤퍼 기자

2. '파리협정 이후 첫 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 점검'... 28차 기후총회 개막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함
-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8년 만에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GST와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27차 총회에서 타결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의 구체적인 자원 마련과 운영 방안 등임
-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임

(경향신문 2023.11.29) 김기범 기자

(한국일보 2023.11.29) 신혜정 기자

3. 중국 수소인프라 시장이 뜬다... 저장·운송 분야 대규모 투자

- 중국 수소 인프라 시장이 뜨고 있음. 특히 중국이 수소 인프라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 진출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음
- 27일 코트라의 '중국 친환경산업 발전현황과 전망(수소산업 중심으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제 75차 UN 회의에서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
-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 연생산량을 10~25만톤으로 확대하고, 수소차 보유량 5만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의된 수소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을 보면 340개 이상임
- 중국이 수소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한국 기업에도 조금씩 틈새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대한경제 2023.11.27) 김승수 기자

1. 해수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집중 육성… 친환경 선박 전환 종합 지원/저탄소 항공연료 투자 때 감세… 직접 PPA 세무부담 줄여

- 정부가 친환경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종합 지원에 나섬.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 연료 공급망·기반 시설도 확충함
- 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까지 확대하는 게 정부의 목표임
- 또한, 정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로 지정을 검토함.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 세제혜택을 통해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임
-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규제혁신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이 들어감

(뉴스 2023.11.27) 박성환 기자

(조세일보 2023.11.27) 강상영 기자

2. 온실효과 CO2 28배인 ‘메탄’… 2030년까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2030년 50만톤 청정메탄을 생산… ‘녹색 신산업’ 육성

- 정부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심의·의결함
- 메탄 감축 로드맵에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현재 13%인 분뇨정화 처리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담김. 농업 부문에서는 체계적 논물관리 법을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됨
- 탄녹위는 또,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을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함
-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함
- 또, 청정메탄을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을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연합뉴스 2023.11.23) 이재영 기자

(에너지신문 2023.11.23) 신석주 기자

3. 통계청, 탄소 포집·저장·활용 ‘특수분류’ 개발… 신산업 육성 지원

- 통계청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관련해 특수분류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함
- 내년 개발 예정인 CCUS 산업 특수분류는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취하거나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구성됨
-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할 경우 입주 대상 사업체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수분류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뉴스1코리아 2023.11.27) 이철 기자

1. 폭스콘, 인도에 2조원 추가 투자… 아이폰 ‘탈중국’ 속도내나

- 애플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함
- 구체적인 투자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최대 고객 애플의 탈(脫)중국·공급망 분산 행보에 맞춘 인도 내 아이폰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분석함
-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전날 대만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인도 자회사인 ‘폭스콘 혼하이 인디아 메가 디벨롭먼트(Hon Hai Technology India Mega Development)’를 통해 인도 건설 프로젝트에 15억4100만달러(약 1조 9927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외신은 폭스콘의 이번 추가 투자 발표가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고 진단함
- 또, 폭스콘의 수익 절반이 애플과의 협력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추가 투자가 인도 내 새로운 제조시설 설립 등 인도 아이폰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짚음

(머니투데이 2023.11.28) 정혜연 기자

2. 아마존, 2025년까지 200만명 대상 무료 AI 기술 교육

- 아마존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00만 명에게 무료 인공지능(AI) 기술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AI 레디(AI Ready)'를 23일 발표함
- 아마존은 이를 위해 새로운 AI 분야 학습과정과 이니셔티브를 개설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임
- 아마존은 'AI 레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성인의 AI 및 생성형 AI 스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8개의 새로운 무료 강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다시티(Udacity)와 함께하는 새로운 '아마존웹서비스(AWS) 생성형 AI 장학금' 프로그램, 학생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코드닷오알지(Code.org)와의 새로운 협력을 발표함
- 아마존의 새로운 'AI 레디'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2900만 명에게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기존 AWS의 약속에 더해지는 것으로, 이미 2100만 명 이상에게 훈련을 제공한 바 있음

(뉴스시스 2023.11.23) 오동현 기자

3. 日, 리튬 대체 아연 배터리 분리막 내년 양산

- 일본 화학그룹 닛폰쇼쿠바이가 이르면 2024년부터 충전용 아연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분리막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연 배터리용 분리막의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고, 이번 개발로 공급망을 크게 향상시켜 재생에너지를 위한 저비용 저장 옵션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이코노믹 2023.11.26) 이태준 기자

4. 스코프3 배출권 거래시장 열리나… VCMi, 스코프3 ‘유연성’ 지침 출시

-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는 27일(현지시각)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무결성 이행 지침 최종안’과 ‘스코프3 유연성 청구 지침’의 출시 소식을 전함
- ‘무결성 이행 최종본’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무결성 이행지침(CoP·Claims Code of Practice)’에 담기지 않았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방법론이 포함됨
-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어려워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VCMi는 스코프3 영역에 ‘무결성’보다는 신뢰도가 낮은 ‘유연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임

(임팩트온 2023.11.29) 송준호 기자

1.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용 리튬생산공장 첫 준공/광양제철소,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Green 제철소 '성큼'

- 포스코홀딩스는 전남 울촌산업단지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공장을 준공했다고 29일 밝힘. 1공장은 연산 2만1500t급으로, 같은 규모의 2공장은 내년 준공 계획임
- 포스코그룹은 광석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적용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 생산을 국산화함. 이를 통해 국내 2차전지소재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임
-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료 절감과 조업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음
- 열풍로 설비는 고로조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번 풍온제어 시스템 개발은 풍온 편차를 줄여 조업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타임즈 2023.11.29) 홍윤기 기자
(쿠키뉴스 2023.11.29) 전승걸 기자

2. 현대차, UAE 최초 수소트럭 시범 운영... 비아그룹과 협업

- 현대자동차가 아랍에미리트(UAE) 비아그룹(BEEAH Group)과 손잡고 현지 최초 수소트럭 시범운영에 나섬
-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아그룹과 UAE 내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사르자와 두바이 2개 지역에서 수소 전기트럭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비아그룹이 사용 중인 내연기관 트럭을 모두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임
- 시범운영 차량으로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퓨얼셀(XCIENT Fuel Cell)'이 투입됨

(더구루 2023.11.29) 윤진용 기자

3. 엘엔에프, 2.5조 초대형 투자 결단... LFP 양극재 방점

- 엘엔에프가 2조원대 신규투자를 결정함. 대구국가산업단지 17만평 규모에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및 차세대 음극재 관련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골자임
- 엘엔에프는 27일 대구시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약 17만평 토지에 대한 신규 투자협약을(MOU)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협약은 2조5500억원의 초대형 투자라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됨
- 엘엔에프는 2030년경을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움. 해당 부지에 △LFP 양극재 공장 2개동(총 16만톤) △차세대 음극재 공장 1개동(2.2만톤)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2동(총 13만톤) 등 설립을 계획 중임

(비즈워치 2023.11.27) 강민경 기자

4. 삼성엔지니어링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수소 프로젝트' 기본설계 착수

- 삼성엔지니어링·롯데케미칼 등 국내기업들이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이 기본설계에 돌입하며 본궤도에 오름
-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H2 비스커스 청정 수소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에 착수하고 킥오프미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힘
- 기본설계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행해 내년 완료 예정임
- 대표적 수전해 기술인 PEM(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와 AEC(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을 모두 검토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화된 수소 생산 방식을 도출할 방침임

(스카이데일리 2023.11.26) 박상훈 기자
(머니투데이 2023.11.24) 이소은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1.24(금) ~ 2023.11.30(목)

제공일시 2023 12 0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유럽의회,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안 통과... EU집행위 초안보다 검증 기준 강화돼

(임팩트는 2023.11.24) 이재영 기자

- 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의회가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함
- 유럽의회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 △투명성을 보장할 것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 △EU 등기소를 설립해 그린워싱과 중복 계상을 방지할 것 등을 강조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탄소제거인증제도 추진까지 본격화되면서, EU의 기후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농업 등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정량화해 이를 인증 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도입을 확정함.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21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해당 사안을 표결(찬성 446, 반대 65, 기권 114)을 통해 합의함
- 이번 표결 통과로 EU 역내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이 본격 가시화된 셈임
- 이번 개정안은 △탄소 제거(carbon removal) △제품 내 탄소 저장(carbon storage in products)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carbon farming sequestration)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carbon farming emissions reduction) 등 네 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증서는 부문별로 다르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부문별 탄소제거 활동으로는 탄소 제거 부문은 직접포집기술(DAC) 프로젝트,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나 탄산음료 제조 등이 있음.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 부문은 토지관리를 통한 농경지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 부문은 축산업 등에서 분뇨 관리를 통한 탄소 감축이 포함됨
-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제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 세기 이상 동안 탄소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탄소농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식량 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 최소 5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한 목재나 건축용 자재로 인증서 발급이 제한됨
- 표결 후 리디아 페리이라 유럽의회 보고관은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명확성 부족 및 낮은 신뢰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소제거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제도는 탄소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 기후 완화를 돕고 유럽의 기후 리더십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